

반려동물 상실에 대한 이해와 목회상담

전 요 섭*

국문초록

이 연구는 반려동물 상실에 대한 심리적 이해를 기초로 기독교 신자들의 반려동물 상실에 목회상담자가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려는 것이다. 근래, 반려동물 입양 가정에서는 그것이 이른바 '가족화' 되어 반려동물의 상실은 가족의 죽음에 버금가는 충격으로 나타난다. 반려동물 입양 기독교 신자들은 반려동물 상실로 가족의 안정성이 깨지고, 우울을 비롯하여 다양한 심리정서적 문제들을 야기하며, 가족구성원의 죽음에 비견되는 비애/비통이 발생한다. 반려동물 상실을 경험한 신자들의 정서는 단지 심리정서적인 문제로만 볼 수는 없으며 영적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목회상담자는 신자들로부터 “반려동물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요청을 받거나 “반려동물도 천국갈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게 된다. 이럴 때 답변은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전능하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동물구원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의 주권과 영역으로 남겨두고, 그것을 희망하는 정도가 건전한 태도라 할 수 있다. 목회상담자는 반려동물 상실가족을 위로, 지지하기 위해, ‘자조 지지집단’을 형성하거나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반려동물 상실감에 성령의 위로와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목회상담자가 재구성하는 것은 중요한 지지기반이라 할 수 있다.

주제어: 반려동물, 반려동물 상실, 상실가족, 목회상담, 기독교상담

• 논문 투고일: 2020년 3월 3일

• 논문 수정일: 2020년 5월 4일

• 게재 확정일: 2020년 5월 9일

* 성결대학교 파이데이아학부 교수

I. 여는 글

상실(loss)의 국어사전적 정의는 ‘잃어버림’ 또는 ‘없어지거나 사라짐’이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상담 및 심리분야에서 이 용어는 더 많은 개념을 내포한 주요 용어로 사용된다. 대표적으로 Mitchell과 Anderson (1983)은 모든 상실을 여섯 가지(물질적 상실, 관계적 상실, 정신내적 상실, 기능적 상실, 역할적 상실, 공동체적 상실)로 분류했다. 어떤 형태의 상실이든 상실은 심리적 외상(psychological trauma) 사건인데, 인간이 겪는 가장 심각한 외상 사건은 의미 있는 타인 또는 그러한 대상의 죽음이다(Pledge, 2004). 의미 있는 타인 또는 그러한 대상은 대개 부부, 부모자녀 및 가족이지만, 근래 반려동물 입양가정에서 그것이 이른바 ‘가족화’ 되어 반려동물의 상실(pet-loss)은 가족의 죽음에 버금가는 충격으로 나타나 다양한 심리정서적 문제들이 야기된다.

여기서 우리말 ‘가족화’(家族化, famililization)라는 용어는 Hulse (1951, *Drawing a Family: DAF*)나 Burns와 Kaufman(1971, *Kinetic Family Drawing: KFD*)이 가족치료를 위한 분석도구로서 가족의 일부 또는 전체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가족화’와 한글 용어는 동일하지만 다른 개념이다. ‘famililization’(가족화)라는 용어는 근래 국내외에서 학술적 의미의 신조어로 사용되고 있다. 즉 가족 외적 대상이 물리적, 심리적인 면에서 가족구성원의 일원으로 편입되거나 동화되는 개념 또는 가족구성원들이 어떤 외적 대상을 물리적, 심리적인 면에서 자신의 가족구성원으로 수용하는 개념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그 반대 개념을 ‘탈가족화’(de-famililization)라 한다.

과거와 달리, 대부분 반려동물 입양가족에서는 반려동물을 ‘가족’ 또는 ‘가족이나 다름없다’고 인식하고 있는데(Desmond, 2011), 국내 통계로는 20대의 95%, 30대의 94.3%, 40대의 88.6%, 50대의 86.5%가 반려

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용숙, 2017). 이렇듯 가족화된 반려동물의 상실은 가족상실에 비견되는 심리적 외상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실가족이 경험하는 대부분의 심리정서적 문제들은 반려동물 상실가족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Cusackm 1988; Linzey, 2013).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입양하여 가족화하기 시작한 때는 대략 2000년대 초반부터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발표(2017)에 따르면, 반려동물 입양은 전국적으로 1,000만 마리(전 인구의 28.1%)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개의 경우)의 수명이 평균 15-17년인 것을 감안하면 2015년 이후부터 반려동물 상실가족들이 급격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독교 신자들도 일반 비율에 준하는 정도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데, 이들도 당연히 반려동물의 상실과 그로 인한 심리적 외상을 경험한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자들은 일반인과 달리 반려동물 상실에 자신의 구원관을 투사하여 반려동물의 구원 및 부활관련 질문, 천국에 반려동물의 존재여부관련 질문을 하게 된다. 또한 반려동물 건강 등에 대한 축복기도의 요청, 기독교 형식의 반려동물 장례 요청 등 한국교회 목회현장에서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했고, 받아보지 못한 질문들이 봇물 터지듯 발현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와 달리, 목회(상담)자들은 반려동물을 상실한 신자들의 고민과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되며, 이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Linzey, 2013). 따라서 이 연구는 반려동물 상실에 대한 심리적 이해 분석을 기초로 하여, 목회상담학적으로 기독교 신자들의 반려동물 상실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려는 것이다.

II. 펴는 글

1. 반려동물에 대한 일반적 이해

1) 반려동물 입양 이유

현재 국내 반려동물 입양가구는 28%이며, 미국의 경우는 39%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Desmond, 2011). 이는 꾸준히 증가해 온 수치이며, 향후 더욱 증가하리라고 예측된다.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공통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Sharkin & Knox, 2003). 첫째, 공동체성의 감소(가족구성원 서로의 지지가 약해짐에 따라 반려동물을 통한 지지) 둘째, 핵가족의 증가 및 1인 가족의 증가(가족이 없음으로 나타나는 외로움과 고독을 극복하기 위한 입양) 셋째, 대리적 역할(반려동물을 의인화하여 자녀 또는 친구로 투사한 관계 형성) 넷째, 정서적 충족(위로, 즐거움, 생기, 발달, 활력, 재능, 웃음, 충성심, 신뢰감, 친밀감, 보호감, 유대감, 안정감, 역동성, 상호작용, 애정, 애착 등의 획득)이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의 삶의 주변에서 이렇게 다양한 정서적 충족을 얻을 수 있는 대상은 흔하지 않으며 그 대표적인 존재가 반려동물이라고 볼 수 있다.

Beck과 Madresh(2008)는 반려동물 입양 이유를 네 가지로 정리했는데 첫째, 반려동물의 인간에 대한 무조건적 사랑, 둘째, 반려동물의 비보복적 수용성, 셋째, 반려동물의 절대적 충성, 넷째, 반려동물에 대한 인간의 정서적 지지라고 했다. 실제로 인간의 삶에서 반려동물만한 충실한 동반자, 호의적인 대상,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존재는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Nieburg & Fischer, 1996). 경쟁적이지 않고 수용적인 반려동물과 더불어 상호작용을 하고 친화적 태도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심리정서적으로 상당한 유익이 있다. 반려동물 소유 자체가 주

관적 행복감을 증진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Han, 2018),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심리정서적으로 건강하다는 연구결과들을 흔히 발견할 수 있다(Allen, 2003). 반려동물을 입양하여 양육함으로써 심리정서적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결과이다.

그런가 하면, Keralis(2012)는 반려동물 입양가족이 동물에게 애정을 쏟는 면에서는 가족처럼 느낄 수 있겠으나, 다른 시각으로 볼 때, 동물을 지배하여 그것의 충동을 억제/통제하고, 길들이고, 훈련하여 그것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복종하고 친절하도록 그리고 자신의 정서를 만족시키도록 만드는(the making of pet) 일종의 신종 노예와 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런 입장은 한편으로 반려동물 입양가족을 폄훼하는 것으로 비쳐지기도 하지만 일말의 그런 심리적 특성을 분석한 것일 수도 있다.

2) 반려동물의 의인화 및 가족화

반려동물이 단순히 애완동물 정도였던 시기가 있었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음이 분명하다. 그래서 1983년까지는 이를 ‘애완동물’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1983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동물행동학자 Lorentz가 애완동물을 일컬어 ‘함께 살아가는 동물’(companion animal: 반려동물)이라는 용어를 제안하여 그것이 일반화됨으로써 이른바 ‘반려동물’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그러다가 2000년 이후에는 반려동물이 가족과 다름없다는 의미에서 ‘반려가족’(pet-family)이라고 부르며, 영어로 ‘pet-fam’(펫팸)으로 칭하고 있다. 펫팸(pet-fam)은 반려동물을 뜻하는 ‘펫’(pet)과 가족을 의미하는 ‘패밀리’(family)를 합친 신조어이다(<http://news.einfomax.co.kr>). 과거와 달리, 반려동물이 가족 또는 그에 준하는 의미 있는 타자(significant

other)인 것은 명백하다.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가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적인 현상은 동물에 대한 의미를 격상하여 의인화(personification)와 가족화(famililization)가 나타나는 것이다. ‘의인화’란 반려동물 입양자가 반려동물을 인간처럼 인식하고, 인간을 대하듯 하는 것인데, 이는 반려동물이 인격이 아니고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이지만, 마치 사람에게 말하듯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가족화’는 반려동물이 입양된 가족생활에 적응하면서 가족처럼 취급받는 것이기도 하다. 반려동물 입양가족은 대부분 반려동물을 ‘가족’ 또는 ‘가족처럼’ ‘가족이나 마찬가지로’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Donohue, 2005: 187). 가족화 인식에서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반려동물을 자녀처럼,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반려동물을 막내(늦둥이)에 준하는 대접을 하게 된다. 반려동물 입양가족은 스스로 자신을 ‘아빠,’ ‘엄마,’ ‘형’ (오빠, 누나, 언니)으로 자처한다. 반려동물의 연령이 가족의 최연소자보다 많을지라도 서열에 있어 입양자는 우위를 차지하며, ‘형’ (오빠, 누나, 언니)으로 호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반려동물을 일컬어 ‘유사 친족’ (fictive kin) 또는 ‘기능적 친족’ (functional kin)이라고 부르기도 한다(Johnson, 2009: 15). 또한 반려동물을 일컬어 ‘it’ 로 나타내기보다는 ‘she/he’ 로 부르며, ‘baby’ 라고 표현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반려동물은 입양가족의 중심에 존재한다. 가족 간에는 서로 소통이 없을지라도 모든 가족구성원이 반려동물과는 스킨십이나 대화를 시도한다. 뿐만 아니라 가족은 반려동물에 집중적인 관심을 나타내어 함께 배려하고, 함께 놀고, 함께 운동하고, 함께 여행하고, 심지어 함께 자기도 하며,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도 하는데, 이런 현상은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 반려동물 입양가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편적인 모습이다. 이런 경우에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죄)은 아닌지’의 질문에 대하여 신

학적으로나 목회상담학적으로 마땅한 답변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원론적으로, 어떤 생명이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므로 이를 존중히 여기고, 보호하고, 배려하며, 그것이 상실되었을 때 안타까워하는 태도는 기독교적인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애정이 지나쳐 혹 ‘우상화’ 되지 않도록 권면하는 정도 외에 적합한 설명을 찾기는 어렵다.

2. 반려동물 상실로 겪는 심리

‘가족화’ 된 반려동물의 상실은 틀림없이 모든 가족의 안정성을 깨뜨리고 슬픔과 우울을 비롯한 심리정서적 문제들을 야기한다(Shuchter & Zisook, 1993). Johnson(1992) 등은 반려동물 상실에 대하여 일반 애도와는 다른 심리적 특성이 있음을 분석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애도척도를 개발하였다(Johnson, Garrity, & Stallones, 1992; Hunt & Padilla, 2006).

모든 상실에는 후회가 동반되는데, 반려동물의 상실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병원에 좀 더 일찍 데리고 갔어야 했는데...” “내가 운동을 많이 시켰어야 했는데...” “내가 스트레스를 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여행갈 때 데리고 갔어도 되었는데...” “오줌 아무데나 싸다고 발로 차지 말았어야 했는데...” “소파 물어뜯었다고 소리 지르지 말았어야 했는데...” “안락사 시키지 않았어도 되었는데...” “이런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진작 안락사를 시켰어야 했는데...” 등의 후회를 하게 된다. 대부분의 후회는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반영되어 가공된 것으로서 어떤 행동을 취했어도 상실과 관련된 후회는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단순한 후회와 죄책감이 결부된 후회는 상실의 질을 다르게 하는데, 죄책감이 결부되면 풀기에 복잡한 감정이 되어 회복을 다소 어렵게 만들 수 있다(Fawcett, 2016).

상실을 경험한 사람이 상실대상에 대하여 충분히 슬퍼하는 것은 회복

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과정이다. 슬픔을 영어로 'mourning'이라 하는데, 이는 '아침'을 뜻하는 단어 morning과 정확하게 동일한 발음임을 착안하여 영어권에서는 'good morning을 위하여 good mourning을 해야 한다'고 언어의 유희를 통해 충분한 슬픔의 유익을 강조하기도 한다(Cole, 2008; Ifowodo, 2016; Meyer, 2016). 하지만 반려동물의 상실에 따른 비애/비통을 충분히 나타내는 것이 사회문화적으로 볼 때 쉬운 일이 아니거나 용납/수용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일이다. 1985년 미국에서 발간된 애완동물관련 문헌에 따르면, "애완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주인이 슬퍼할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주변사람들로부터 조롱 당할까봐 비애/비통의 감정을 숨겼다."는 기록이 있다(Cowles, 1985: 135). 그런가 하면, 30년이 지난 2016년에 발표된 연구논문에서도 반려동물의 상실로 슬퍼하는 것에 대한 비난이 있을까 하여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이 있다(Fawcettm, 2016). 우리보다 반려동물 입양이 훨씬 일찍 일반화되고, 문화적으로 감정표현이 비교적 자유로운 미국에서도 30여년 전이나 작금이나 반려동물 상실에 대한 슬픔에 대하여 사회적 지지를 충분히 얻지 못한다는 것은 반려동물 상실가족에게는 안타까운 현실일 것이다.

1) 아동과 노인, 상실경험의 영향

동일한 상실경험이라 할지라도 아동이 느끼는 슬픔과 충격은 더 크고, 더 끔찍한 것일 수 있다(Miltiades & Shearer, 2011). Levinson(1972)은 동물의 죽음을 통해 아동에게 모든 인간도 죽음의 불가피성에 노출되어 있음을 깨닫도록 하고, 의미 있는 타인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교육하는 현장이 되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실경험을 순기능적으로 전환하여 심리적 준비와 내성(tolerance)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다.

노인에게 반려동물은 특별한 의미를 제공하는데, 반려동물이 자신의 구취, 체취, 늪음 등을 싫어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항상 곁에 있어줌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한다. 또한 노인이 반려동물에 신경을 씬으로써 자신의 노화와 신체화 증상에 집중하는 것을 감소할 수 있고, 외로움(고독), 우울함 등을 해소할 수 있어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상실한 노인의 경우, 상실경험이 없는 노인에 비해 극복하기 힘든 비애/비통으로 심한 우울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 (Miltiades & Shearer, 2011). 즉 노인은 반려동물과 애착관계가 형성될수록 심리정서적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그 애착대상인 반려동물의 상실을 경험했을 때는 심리정서적으로 회복하기 쉽지 않은 상태가 될 수도 있다. 노인에게 반려동물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커다란 이점과 매우 커다란 약점을 동시에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반려동물의 죽음과 장묘

(1) 반려동물의 죽음

통상 죽음으로써 해소된 관계를 일컬어 ‘사별(死別)이라고 하나, 반려동물의 죽음으로 발생된 이별을 ‘사별’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반려동물의 죽음은 광범위한 개념의 용어 ‘상실(喪失-loss)에 내포하여 우리말로 ‘반려동물 상실’이라 표현하며, 영어로는 ‘pet-loss’라 한다. 과거에는 애완동물을 집밖에서 키웠고, 애착관계도 약했기에 애완동물이 죽었을 경우, 단지 안타까운 심정 이외에는 특별한 정서가 없었으므로 슬퍼한다거나 우울한 현상은 정서적 통제력이 약한 일부 아동에게서나 볼 수 있는 일이었다. 개나 고양이 등이 애완동물에서 반려동물로, 반려동물에서 반려가족이 되면서 심리정서적 거리도 가까워져 그것의 상실은 충격으로 작용된다. 이를테면, 아동 가운데는 할아버지의 죽음에 무덤덤

할 수 있으며, 고모부의 죽음에 역장이 무너지는 슬픔을 경험할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단지 상실이 슬픔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애착관계에 따라 슬픔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안경승, 2014; Walton & Fowler, 2013). 그런 면에서 볼 때 반려동물의 관계는 심리정서적 거리가 먼 친척의 상실보다 더 밀착되어 있으며, 의미 있는 가족의 상실에 준하는 슬픔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인간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이 어떻게 같을 수 있는가?”라는 이성적 태도는 옳은 것이지만, 반려동물 상실 가족을 대하는데 있어서 상담자로서는 바르게 접근하는 것이 못할 수도 있다.

반려동물 상실에 대하여 실제 가족의 상실에 준하는 충격과 심리정서적 문제를 겪는 사람은 여성의 40%, 남성의 28%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Geraldine & Holcomb, 1991). 이는 미국의 통계이기는 하지만 국내에서도 대동소이하리라고 볼 수 있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공감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려동물 상실로 인한 충격도 덜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입장은 상당한 배려와 의인화가 나타나며, 가족화의 인식에 있어서 가족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남성은 여성에 비해 약한 공감적 양육태도를 보이고, 동물 복지에도 다소 약한 배려와 의인화가 나타나며, 가족화의 인식에 있어서도 가족이나 마찬가지로 입장을 취함으로써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Miller, Staats & Partlo, 1992).

(2) 반려동물의 장묘

반려동물 입양자는 반려동물이 인간보다 수명이 매우 짧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반려동물을 입양하기 전에 자신이 반려동물의 죽음(상실)을 목격하고, 그 사체를 처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근래, 반려동물 상실에 대하여 애도의식을 치르려는 입양가족들이 많아지고 있다. 대부분의 기독교회에서는 반려동물의 애

도의식과 관련하여 공식화된 예식/예전이 없기 때문에 신자들로부터 이런 요구를 받을 때 목회(상담)자는 당황할 수밖에 없다. 반려동물의 애도 의식을 치렀다 하여 비애/비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나, 장례의식 (funeral ritual)은 죽음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는 방편이고, 관계에 대하여 분명히 종결하는 절차라 할 수 있다.

반려동물의 사체 처리에 있어서 임의로 (자기 소유의 땅이라 하더라도) 매립하는 것은 불법이다. 동물의 사체 처리는 첫째, 관련 민간업체에 위탁 처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된 동물 장묘업체에서 절차에 따라 화장(비용: 20-100만원), 둘째, 동물병원에 위탁 처리(의료폐기물): 일반 의료폐기물로 폐사한 다른 동물들과 함께 일괄 소각하는 방법(이 경우에는 반려동물의 유골을 받아볼 수 없음). 셋째, 쓰레기 처리: 반려동물의 사체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것 가운데 하나의 방법을 취해야 한다. 반려동물과 맺었던 유대와 애착을 고려하면 그 사체를 쓰레기로 취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국에서는 반려동물 생존시 거의 동일형태의 인형을 만들어 보관하고 상실이후, 그것을 보며 회상하는 유행이 생겼는데, 이를 ‘Cuddle Clone’ 이라 한다. Capretto(2015)는 상실의 단서들로부터 단절하고, 벗어날 때 비로소 회복이 가능해지고 빨라진다는 주장을 했지만, 반려동물 입양가족들은 상실이후에도 회상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나타난다. 대개 위기상담학에서는 상실과 관련하여 그 단서들을 놓아버리고, 떠나보내고, 집착하지 않을 때 새로운 삶이 가능해진다고 보고 있다(Day, 2006).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신자들이 “반려동물의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거나 “반려동물이 천국 가게 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반려동물의 장례식을 치르게 해 달라”는 비전통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매우 난감해 하면서 이런 요구를 지혜롭게 억누르거나 회피하는 형태를 취해왔다 (Prichard et al., 1974). 어느 교단에서나 동물관련 예식/예전이 없기도

하지만 거룩하고 경건한 예식/예전을 동물 장례를 치르는 방편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입장도 있다. 그러나 장례 자체가 사자(死者)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산 자를 위한 위로와 지지라면, 반려동물을 상실한 신자를 위해 지지하는 차원에서 기도해주는 것이 다소 익숙하지 않아 어색하기는 해도, 이를 비성경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반려동물의 상실로 신자들이 겪는 비애/비통에 대해 위로하며 기도해주는 것은 광의적 개념에서 목회적 돌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어떤 상실이든 상실은 비애/비통으로 마음의 평정을 흔들리게 한다(장동진, 2018). 통상 반려동물의 상실로 인한 비애/비통은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지속되며, 평균 10개월 정도 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Wrobel & Dye, 2003). 따라서 반려동물의 상실을 경험한 신자들은 이 기간에 암울, 울적, 우울, 침체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정서는 단지 심리학적 문제로만 볼 수 없으며, 영적 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 반려동물 상실에 대한 목회상담적 접근

근래, 반려동물 상실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과거에 없던 반려동물 상실(비애/비통 등) 관련 개인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상담실마다 급증하는 추세이다. 이는 목회상담도 마찬가지인데, 신자들의 인식에 목회상담은 슬픔, 질병, 죄책감, 관계 등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뜻, 성경적인 입장, 적어도 기독교적인 견해를 제공해 주는 분야로 확신하기에 신자들은 자신의 고민을 드러내고 있다(McClure, 2011). 목회상담 현장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신자들로부터 받게 될 질문은 “개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개도 죽어서 천국에 가나요!” “개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도 죄가 되나요?” “개도 없는 천국에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우리 뽀미 천국에 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동물 없

는 천국은 가기 싫어요.” “개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구원 못하실 리가 있어요?” 이처럼 목회(상담)자에게 마치 대드는 듯 항변하는 것에 대하여 Dayringer(2012, 49)는 ‘저항’(resistance)이라고 불렀는데, 대부분의 저항은 목회(상담)자에게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이해했다.

목회상담은 신자들이 가족처럼 중요시했던 동물의 상실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를 상담하는 것인 만큼 상담자는 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져야 한다. 동물과 관련된 목회상담을 하기 위해 목회상담자가 가져야 할 네 가지 개념 이해가 있는데 그것은 1) 동물의 고통, 즉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인격적 태도가 아니라는 것, 2) 동물의 부활, 장차 동물도 사후에 부활할 것인지에 대한 것, 3) 인간의 우월성, 과연 인간이 동물보다 우월한 존재인가에 대한 것, 4) 인간의 잔인성에 대한 것이다(Linzey, 1998). 이는 모든 동물관련 상담의 핵심주제이기도 한데, 이 연구와 관련하여 주로 논란이 되는 것은 동물의 부활이다.

1) 반려동물도 부활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천국에 반려동물이 있기를 바라는 것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대다수 신자들의 바람이다. 자신이 사랑하는 반려동물과 함께 천국의 아름다운 숲속을 산책하는 모습은 반려동물 입양가족들이 갖는 상상일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이러한 바람과 하나님의 섭리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동물도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가?’에 대한 정답은 성경에 명시적으로 기록된 바가 없으므로 ‘천국에 가 봐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성경에 명시적으로 드러난 내용이 아닌 경우에 성경의 본래 의미, 즉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단어, 용례 및 문맥들을 분석하여 신학적으로 해석해 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신학적 해석도 교파적, 교리적 차이를 드러내고 있으며 통일된 입장은 발견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사야 11장의 내용이 장차 천국에서 있게 될 일, 또는 구원이 완성된 내세에 관한 기록이라는 것에 대해 복음주의나 진보적인 신학입장에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동의한다.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엮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젓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젓 뱀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사 11:8).”

이 구절에 따르면, 천국에 이리, 어린 양, 표범, 어린 염소, 송아지, 어린 사자, 암소, 곰, 사자, 소, 독사가 있으며 어린 아이가 이런 동물들과 함께 장난하면서 놀 것이라고 기록했다. 이 구절의 의미가 천국에 동물들이 존재한다는 것인가? 그것들은 구원받은 동물인가 하는 질문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 해석에 대하여 복음주의 일각에서는 여기에 등장하는 동물들은 상징적인, 영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 말썸은 “구원이 완성된 내세에 만물이 새로워질 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 의미도 가지나니 이리나 표범이나 사자나 곰과 같은 악인들도 변화를 받아서 양과 소처럼 유순하여진다.”고 해석하는 입장도 있다(박윤선, 1979). 이는 천국에 동물이 존재한다는 의미라기보다 동물의 포악성, 공격성이 제거되듯, 인간의 죄악성도 그곳에서는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부각하기 위해 동물을 등장시킨 일종의 비유일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Rawlison(1979: 393)은 이 구절에 대하여 메시아의 왕국, 완전한 평화의 왕국에서 있게 될 일로 이해했으나 이는 ‘단지 시적인 표현’이라고 보았다. ‘시적인 표현’이라는 뜻은 현실적이거나 사실적인 것이 아니고, 은유 또는 상징이라는 의미이다. Oswalt(2004: 250)는 이 구절의 해석에서 “본성이 변화된 상태의 동물들과 더불어 살아간

다.”고 함으로써 동물이 천국에 존재한다고 밝혔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재창조에 의해 존재하는 것인지, 구원받은 동물이 부활하여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회피했다.

전도서 3장 20-21 절 “다 흠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흠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는 구절의 해석에 있어서 Pulpit 주석은 이 구절은 의문문으로서 하나님이 인간의 혼과 짐승의 혼을 다르게 취급하실지 그 운명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는 의미라고 해석하고 있다(Whitelaw, 1979). 많은 목회자들은 이 구절이 의문문이라는 사실을 간과하여 마치 인간의 혼은 위로(구원) 올라가고, 동물의 혼은 아래로(지옥) 내려간다고 이해하는 것 같다.

천국에는 식물이나 동물은 전혀 없고 오직 구원받은 인간들로만 packed 곳일까 하는 의문은 제기될만한 것이다. Linzey(2013: 137)는 종교개혁자 Martin Luther가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 Fido를 상실한 후, ‘여전히 하늘에서 꼬리를 흔들고 있다’고 한 진술을 기초로 동물구원을 주장하고 싶어 했는데, 단순히 이 진술만을 가지고 동물구원을 확증하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분명한 것은 동물의 삶도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주만물을 창조하시던 여섯째 날에 동물도 함께 지으시고 좋아하셨다(창 1:25).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 아담이 각종 동물과 함께 지내도록 하셨고(창 2:19), 홍수심판 때에도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면서 더불어 동물들도 함께 구원하시기 위해 방주에 들어가도록하신 것(창 7:2)은 동물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닐 수 없다. 시편 104편 10-12절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시니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마가복음 1

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기도 하실 때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는 구절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동물을 비인격체라 하여 무시하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시편 36:6절 “...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라는 말씀은 동물구원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성경적 근거로 삼는 구절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물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을까? 동물은 믿음을 어떻게 갖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만일 예수를 구세주로 믿은 적이 없는 반려동물이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면, 예수를 구세주로 믿은 적이 없는 모든 인간도 구원받고 천국에 갈 것이라는 논란이 발생한다. 이런 주장은 구원론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롬 10:13-14)라는 구절의 해석을 고민스럽게 만든다.

C. S. Lewis(2014, 9)는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모든 진리가 성경에 담겨 있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 성경이 침묵한다고 하여 그것이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동물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Lewis의 견해를 그대로 수용한 Linzey(1998: 137)도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관계에서 구원을 논해야 하지만 동물은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런 진술은 동물이 인간과 다른 차원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의미를 드러낸 것이다. 애초부터 인간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없는 존재(동물)가 인간의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영접하고, 믿고, 고백해야만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동물은 인간과 달리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는 생물학적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본다면 이해가 되는 진술이기도 하다.

누가복음 20장 35절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라는

구절을 일각에서는 천국에 이성(異性)도 없고, 사랑도 없고, 성생활도 없다면 그런 곳에서 무슨 재미로 영원을 보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천국은 말초적이고, 감각적인 것들이 하등의 재미가 될 수 없으며, 차원이 다른 새로운 즐거움, 기쁨과 환희가 있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구절을 기초로 다른 차원에서 해석해 본다면, 천국에는 이 땅에서 반려동물로부터 얻었던 정서적 즐거움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다른 즐거움이 있다는 내용을 시사하는 말씀으로 볼 수도 있다. 천국에 동물이 있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에 의하여 존재할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으나 성경의 명확한 기록은 발견하기 어렵다. 다만, 하나님은 동물을 지으신 창조주로서 전능하신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동물구원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의 주권과 영역으로 남겨두고, 다만 그것을 희망하는 정도가 가장 건전한 태도라 할 수 있다. 인간이 겪는 모든 문제는 정확한 답을 얻어야만 비로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답을 모를지라도 '의문의 희망' 이 문제 극복의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반려동물 상실에 대한 목회상담적 태도

반려동물은 가족들에게 짧은 시간에 '생로병사'(生老病死)를 모두 보여주기 때문에 상실가족들은 죽음을 통해 삶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유익될 수 있다. 문화적으로 표현이 비교적 자유로운 미국에서 가족 간에 죽음을 화두로 삼고 진솔하게 대화하는 가족이 30%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반려동물의 상실을 단서로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하여 대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Ryerson, 1977). 특히 아동에게 자연스럽게 생명의 고귀함과 죽음이 삶의 한 부분임을 교육하고 생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것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반려동물의 상실을 경험한 가족에게 “개 죽은 거 가지고 왜 그렇게 슬퍼해? 얼

른 있어! 새로 한 마리 사면될 것 아니야!” 이런 말은 위로가 되지 않을 뿐더러 설득력도 없고 오히려 상실가족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잔인한 말이 될 수 있다. 반려동물을 입양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반려동물 상실에 대한 슬픔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감하기가 쉽지 않다 (Redmalm, 2016). 그래서 반려동물 상실가족의 절반 이상이 “이 사회는 반려동물의 상실로 슬퍼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슬픔을 가치로 여기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으로 분석된다(Fawcettm, 2016: 171).

상실 반려동물과 동종의 새로운 동물의 입양은 이전 반려동물을 잊게 하는 작용을 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Tully, 1999), 동종의 반려동물이 오히려 정신적 혼란을 야기한다는 입장도 있다. 하지만 경험적인 진술들을 종합해 보면, 동종의 새로운 반려동물과 상실 반려동물 간의 비교(“너는 꼬미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왜 그걸 못하니? 참 이상하다!”)가 나타나 실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표현형질만 동일할 뿐, 성격과 행동의 차이가 날수록 떠난 동물에 대한 그리움과 상실감이 더 커질 수도 있다. 또한 동종의 새로운 반려동물 입양은 아동에게 죽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생명의 존엄성을 가볍게 인식하거나, 존재를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만든다. 대부분 반려동물 상실 경험자들은 상실과 동시에 새로운 반려동물 입양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 특히, 오랜시간 반려동물의 질병상태를 지켜보고 상실을 경험한 가족들은 더욱 그렇다.

반려동물을 입양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반려동물의 상실에 대해 공감할 수 없기 때문에 입장이 같은 사람들끼리 지지집단(support group)을 형성하여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드러내고 공감, 이해, 위로, 지지를 주고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교회, 목회자, 목회상담자는 반려동물 상실가족을 ‘자조 지지집단’과 연결(link)할 수 있어야 하며, 또는 ‘지지집단’을 이끌 수 있는 집단상담기법을 갖추고 있어야 한

다. 대규모 교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이런 집단을 형성하여 상실가족들에게 집중적인 위로와 지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소규모교회에서는 이런 신자가 있어도 이들을 위로, 지지할 수 있는 상담전문인력의 확보나 지지체계를 마련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지방회(노회 또는 시찰회) 등 교회들이 연합하여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동질 지지집단에서는 ‘합의적 타당화’(consensual validation)로 인해 치료적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를 다른 용어로 ‘보편성’(universality)이라고 하며, ‘공통성’(commonality) 또는 ‘일반화’(generality)라고도 한다. “너도 그러니? 나는 나밖에 그런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다 똑같네!”라는 생각을 갖게 될 때 자신의 문제를 더 이상 문제로 보지 않고 자신의 증상이 문제라 할지라도 수월하게 극복하게 된다. 반려동물 상실가족 지지집단에서 특별한 답을 얻는 것이 없어도 안타까움, 슬픔, 우울감 등의 정서를 충분히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회복과 치유를 위해 상당히 가치 있는 일이다(Capretto, 2015).

상실/애도상담학자 Wolfelt(2009)는 상실/애도상담은 치료(treatment) 과정이 아닌, 동반(companion)으로 이해했다. 아픔과 슬픔을 겪는 사람 곁에 함께 있으면서 마음을 보듬어주는 것 이상의 치료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지집단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며, 개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지만 공동체를 통해서 형성되기도 하고 문제를 극복해내는 동기를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은 지지집단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한다.

모든 문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반려동물 상실은 영적인 문제와 큰 관련이 없는 듯 보이지만 영적 관련성의 문제들이 대두되기도 한다(Hill & Armstrong, 1998). 영성이란 완전히 구분되고, 완전히 독립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서 등 여러 부분과 연결되어 있어 심리적 불안정성은 영적 안녕감에도 영향을 준다(전요섭, 한경옥, 2012). 반려동물 상실로

인해 영적 생활에서 이탈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로써 영적 성장을 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목회상담자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돌봄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자신의 상실감에 성령의 위로와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경험을 재구성하는 것은 중요한 지지기반이라 할 수 있다.

목회상담이 신자들의 환경과 삶에서 발생된 문제들을 이해하고 해결해주는 것이라는 정의에 기초한다면(Prichard et al., 1974). 반려동물 상실을 경험한 신자들의 문제를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고통 받는 신자들이 문제를 잘 극복하고 온전한 삶으로 복귀하도록 위로, 지지하는 것은 목회상담의 주요 기능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Dayringer, 2012). 하지만 그 접근에 있어 일각에서는 고통당하는 내담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기대하는 돌봄을 제공해 주어야 그것이 바른 목회상담이라고 보는 입장이 있다(Armistead, 1995). 이런 주장은 복음주의 입장과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받고 싶은 지지와 필요한 지지는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목회상담자는 반려동물 상실로 슬퍼하고 우울한 신자들에게 동물구원이 없다고 단정하여 슬픔과 우울을 더욱 가중시킬 필요는 없다. 상실 동물에게서 보는 바와 같이 언젠가는 사랑하는 존재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염구에 두고, 하나님이 반려동물을 구원하셔서 천국에 있게 한다면 자신이 구원받기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바른 목회적 돌봄이 될 것이다.

III. 닫는 글

목회상담은 항상 말씀(text)과 상황(context) 사이에서 갈등을 겪어 왔다. 신자들이 도전받는 상황에 대하여 목회상담은 성경적인 입장 및 그

에 입각한 대안의 제시를 요구를 받아왔다. 그런 맥락에서 반려동물의 상실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도 목회상담이 개입해야 하는 고민스러운 주제라 할 수 있다. 반려동물 상실로 인해 발생했을 심리적 문제들로부터 치유(복원력, 회복력, 적응성)되는 원동력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기도가 회복의 주요 방편이 될 것이다. 즉, 상실의 국어사전적 정의인 잃어버림 및 없어지거나 사라짐으로써 발생된 허전한 상태에 성령의 충만으로 인한 위로와 지지가 필요한 것이다. 점차 반려동물 입양 가족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상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목회상담자는 그들을 상담해야 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반려동물 상실은 그것을 양육했던 신자들의 가족들에게도 명백하게 스트레스 사건이며, 정서적 안녕감을 해치는 것은 분명하다. 반려동물 상실가족들은 대개 비애/비통을 드러내는 것에 어색함을 느낄 수 있으므로 교회에서 드러나지 않거나, 자칫 목회적 돌봄에서 소외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상담자는 이런 경우, 신자들의 요구가 없더라도 그것을 표현하기 어려운 사회문화적인 상황을 이해하여 적극적인 지지와 위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목회적 개입을 해야 한다.

이 연구는 문헌연구였으나 향후 이 주제와 관련하여 반려동물을 상실한 기독교신자들의 심리정서적 상태와 비신자들의 상태를 통계적으로 비교해 보는 것도 중요한 연구라고 사료된다. 또한 이 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반려동물 상실가족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의 과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아울러 반려동물 상실과 회복 간에 작용하는 신앙요소들은 무엇이며, 그 매개 변인들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통계적인 분석이 있다면 이 연구와 아울러 더욱 심층적인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 박윤선 (1979). *성경주석: 이사야서*. 서울: 영음사.
- 안경승 (2014). 상실로 인한 슬픔 이해하기. *복음과 상담*, 22(2), 9-40.
- 이용숙 (2017). 가족으로서의 반려동물의 의미와 반려동물로 인한 구별짓기. *한국문화인류학*, 50(2), 337-403.
- 장동진 (2018). 기독교상담에서 죄의 문제 다루기: 애도(mourning)를 통한 이해. *복음과 상담*, 26(2), 185-219.
- 전요섭, 한경옥 (2012). 노인의 영적 안녕감 형성이 죽음불안 감소에 미치는 영향. *복음과 상담*, 19, 296-323.
- Beck, L., & Madresh, E. A. (2008). Romantic partners and four-Legged friends: An extension of attachment theory to relationships with pets. *Anthrozoös*, 21(1), 43-56.
- Burns, R. C., & Kaufman, S. H. (1971). *Kinetic family drawings(K-F-D): An introduction to understanding children through kinetic drawings*. London: Constable.
- Clay, V. S. (1976). Children deal with death. *The School Counselor*, 23(3), 175-184.
- Cole, A. H. (2008). *Good mourning: Getting through your grief*.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 Cowles, K. V. (1985). The death of a pet: Human responses to the breaking of the bond. In M. B. Sussman. (Ed.) *Pets and the family*. NY: Haworth.
- Cusack, O. (1988). *Pets and mental health*. London: Haworth.
- Dayringer, R. (2012). The image of god in pastoral counseling.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51(1), 49-56.
- Day, L. (2009). 위기의 심리학(채인영 역, *Welcome to your crisis*). 서울: 허원미디어. (원전 2006 출판).
- Desmond, J. (2011). Animal deaths and the written record of history: The politics of pet obituaries. Linda Kalof & Georgina M. Montgomery. (Ed.) *Making animal meaning*. East Lansing: Michigan State University Press.

- Devries, B (2013). Linzey and C. S. Lewis' theology of animals. *Journal of Animal Ethics*, 3(1), 25–40.
- Donohue, K. M. (2005). Pet loss: Implications for social work practice. *Social W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Fawcett, A. (2016). Mourning for animals: A companion animal veterinarian's perspective. In Margo DeMello. *Mourning animals*. East Lansing: Michigan State University Press.
- Geraldine, G. M., & Holcomb, R. (1991). couples' perception of stressfulness of death of the family pet. *Family Relations*, 40(1), 103–105.
- Han, A. R. (2018). A study on attitude to companion animals and adults' subjective well-being.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9(4), 549–564.
- Hill, E. W., & Armstrong, G. F. (1998). Integrity in pastoral counseling.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37(2), 105–113.
- Hulse, W. C. (1951). The Emotionally Disturbed Child Draw His Family. *The Quarterly Child Behavior*, 3, 152–174.
- Hunt, M., & Padilla, Y. (2006). Development of the pet bereavement questionnaire. *Anthrozoös*, 19(4), 308–324.
- Ifowodo, O. (2016). *A good mourning*. Ikeja Lagos: Parreésia Publishers.
- Johnson, J. (2009). *Dogs, cats, and their people: The place of the family pet and attitudes about pet keeping*. MA. Thesis: University of Waterloo.
- Johnson, T. P., Garrity, T. F., & Stallones, L. (1992).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Lexington Attachment to Pets Scale(LAPS). *Anthrozoös*, 5(3), 160–175.
- Karen, A. (2003). Are pets a healthy pleasure? the influence of pets on blood pressure.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2(6), 236–239.
- Kathryn, A. M. (1995). *God-images in the healing process*. Minneapolis: Fortress.
- Keralis, S. D. C. (2012). Feeling animal: pet-making and mastery in the 'slave's friend. *American Periodicals*, 22(2), 121–138.
- Levinson, B. M. (1972). *Pets and human development*. Springfield, IL: Thom.

- Lewis, C. S. (2014). *The problem of pain*. NY: HarperCollins.
- Linzey, A. (1998). C. S. Lewis's theology of animals. *Anglican Theological Review*, 80(1), 60–81.
- Linzey, A. (2013). Animal Burials. In Andrew Linzey. (Ed.) *The global guide to animal protection*. Urbana, IL: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McClure, B. J. (2011). *Contemporary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Definitions of terms and descriptions of practices*. London: Lutterworth Press.
- Meyer, E. (2016). *Good mourning*. NP: Gallery Books.
- Miller, D., Staats, S., & Partlo, C. (1992). Discriminatin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of pet interaction: Sex differences in the older popul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27(4), 363–374.
- Miltiades, H., & Shearer, J. (2011). Attachment to pet dogs and depression in rural older adults. *Anthrozoös*, 24(2), 147–154.
- Mitchell, K., & Anderson, H. (1983). *All our losses, all our griefs resources for pastoral care*.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 Oswalt, J. N. (2004). NIV 적용주석: 이사야(장세훈, 김홍련 역, *Isaiah: The NIV application commentary*). 서울: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원전 2003 출판).
- Pledge, D. S. (2004). *Counseling adolescents and children: developing your clinical style*. Princeton, NJ: Recording for the Blind & Dyslexic.
- Prichard, S. G., Price, S. M., Murphy, J. M., Messerschmitt, J., & Brockman, W. G. (1974). Pastoral counseling.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13(1), 40–56.
- Rawlison, G. (1971). 풀빛성경주석 제26권: 이사야서 상(박수암 역, *Isaiah*). 서울: 보문출판사. (원전 1967 출판).
- Redmalm, D. (2016). So sorry for the loss of your little friend: Pets' grievability in condolence cards for humans mourning animals. *Mourning animals: Rituals and practices surrounding animal death*. East Lansing: Michigan State University Press.
- Ryerson, M. S. (1977). Death education and counseling for children. *Elementary School Guidance & Counseling*, 11(3), 164–174.
- Sharkin, B. S., & Knox, D. (2003). Pet loss: Issues and implications for the

- psychologist. *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34(4), 414–421.
- Shuchter, S. R., & Zisook, S. (1993). The course of normal grief. In M. S. Stroebe, W. Stroebe & R. O. Hansson. (Ed.) *Handbook of bereavement: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ully, J. (1999). Dealing with death: Good-bye, old friend. *The American Journal of Nursing*, 99(8), 240–311.
- Walton, N. K., & Fowler, J. (2013). The experience of loss. In *The global guide to animal protection*. Urbana, IL: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Whitelaw, T. (1979). *플뿔성경주석: 전도서(박영철 역, Ecclesiastes)*. 서울: 보문출판사. (원전 1977 출판).
- Wolfelt, A. D. (2009). *The handbook for companioning the mourner: Eleven essential principles*. Fort Collins, CO: Companion Press.
- Wrobel, T. A., & Dye, A. L. (2003). Grieving pet death: Normative, gender, and attachment issues, *Omega: Journal of Death & Dying*, 47(4), 385–394.

【 Abstract 】

Pastoral Counseling through Understanding on the Grief of the Loss of Companion Animal

Jeon, Joseph

Sungkyul University

This article is to clarify pastoral counseling through psychological understanding on the grief of the loss of companion animal. Recently, companion animal becomes a part of family. So, the English word familization came into a psychological neologism.

The grief of the loss of companion animal becomes as much as the grief caused by the death of a family member. Psychological traits of grief family include sadness, mental depression, and various emotional problems.

When the pastoral counselor is asked by church members if their companion animal could go to Kingdom of Heaven, pastoral counselors may be lead by confusion.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re is no clear verse in the Bible. God the Creator made not only human but also animals. God is also the almighty God with love; thus, leaving the issue on animal salvation to God's sovereignty is the sound attitude and evangelical aspect. The pastoral counselor should empathize the grief family from the loss of companion animal. In addition, it is encouraged that pastoral counselors make or support church members to join the self-help support group so that the grief from the loss of companion animal can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Pastoral counselors are encouraged to help the grief families learn about human life and death through the loss of companion animals.

Key words: companion animal, pet loss, grief family, pastoral counseling, Christian counseling